

인태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연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로 정례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체결로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3. 14(토) ~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 에너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여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으로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 LNG 스왑 시행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LNG 수급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간 공조간 긴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국교 정상화 60년의 토대 위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산업·통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및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일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 한-일 SCPA 주요 내용 >

- ❶ (위기대응) 교란 징후 발견시 통보하고, 교란 발생시 긴급회의(요청시 5일내)
- ❷ (공급망 관련 조치) 상호 공급망 부정적 조치 자제, 발동시 협의 등
- ❸ (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투자 협력,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정보 공유
- ❹ (자원산업) LNG 공급망 협력, 자원산업 친환경 기술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윤소희 (044-203-5692)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원미경 (044-203-4871)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주요 내용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와 일본국 경제산업성은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은 3R 원칙: 대비·복구·회복탄력성에 기반한다.

주요 협력 분야: 3R 원칙

1. 대비(Readiness): 잠재적 공급망 교란에 대한 준비

- 양 참가자는 공급망 정책,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필요할 경우, 어느 한쪽 참가자는 공급망 교란의 징후를 발견하면 상대 참가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복구(Restoration): 영향받은 분야의 회복 및 복구를 위한 협력

-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 참가자는 교란에 대응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조치에는 우수 관행 및 경험 공유, 회복 지원을 위한 기업 간 매칭, 이해관계자들의 대체 공급원 모색 장려, 기타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한다.
- 양 참가자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무역 제한이나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한쪽 참가자는 이러한 제한이나 장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회복탄력성(Resilience):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양 참가자는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a)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 탄소배출 규제 및 과잉 생산능력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

(b)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분야 협력

- 대체 공급원 발굴 및 투자 가능성을 필요시 공동으로 모색; 광업 및 자원 이용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정련·가공 과정에서의 폐기물 저감 기술 등에 관하여 협력

(c) 자원 산업 분야 협력

- 잠재적 자원 공급원 발굴 및 투자 기회 창출을 위하여 노력;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위험 관리 촉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협력에 관하여 협력

Republic of Korea-Japan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OTI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of Japan have signed the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to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and enhance supply chain resilience. The Arrangement is based on the Three Rs principles related to the: Readiness, Restoration, and Resilience.

Key Areas of Cooperation: The Three Rs

1. Readiness: Preparing for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 Both participants will share expertise and best practices related to supply chain policies, operations, and management. If necessary, either participant will notify the other if signs of a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 are discovered.

2. Restoration: Cooperating in Recovery and Restoration of Affected Sectors

- In the event of a supply chain disruption, either participant may request an emergency meeting to respond to the disruption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Support measures may include: sharing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business matchmaking to support recovery; encouraging stakeholders to explore alternative supply sources; and other support necessary. The meeting will be held within five (5) days from the request unless a valid reason prevents it.
- Both participants will endeavor to minimize unnecessary restrictions or impediments to trade affecting supply chain resilience. Either participant may request consultations and have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such restrictions or impediments.

3. Resilienc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Critical Sectors

- Both participants will cooperate in the following areas:

(a) Collaborated Responses to Global Supply Chain Issues

- Cooperating to mitigate adverse effects from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cluding carbon emissions regulations and excess capacity.

(b) Cooperation on Critical Minerals

- Exploring jointly alternative supply sources and investment may be considered as necessary; cooperating on technologie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mining and use resources efficiently, as well as technologies to reduce waste in refining and processing.

(c) Cooperation on Resources Industries

- Making effort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exploration of potential sources and investments; promoting risk management for stable resource supply chains; collaborating on supply chain cooperation for LNG.